



16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 특실에서 열린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김영호 장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가 차기 회장에 당선된 송윤섭 장로(둘째줄 왼쪽 네번째), 전직 회장단 및 회원들과 함께 '장로연합회 최고!'를 외치며 기념 촬영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새회장에 송윤섭 장로

뉴욕장로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가 16일 오후 7시 금강산식당 지하 특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송윤섭 장로를 선출했다. 차기 회장 선거는 투표권자 22명이 참석하여 박용기 장로 3표, 송윤섭 장로 17표, 기권 2표로 송윤섭 장로가 새 회장에 당선됐다.

송윤섭 차기 회장 당선자는 “전임 회장님들께서 일구어놓은 바탕 위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장로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잘 이끌어나가는 회장, 뉴욕 교계에서 존경받는 장로연합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역량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기 장로와 송윤섭 장로가 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는데, 박용기 장로가 회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박용기 장로를 후보로 추천한 회원이 추천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김영호 장로(왼쪽)가 차기 회장에 당선된 송윤섭 장로(오른쪽)와 함께 기념 촬영했다.

현실적으로는 후보가 2인이었다. 선거에 들어가자 “현실적으로 단일 후보이니, 송윤섭 장로를 박

수로 추대하지”는 의견과 “뭘이요!”를 주장하는 의견이 맞섰다. 뉴욕장로연합회 회칙 제7조에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비밀 무기표 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견이 맞서자 의장 김영호 장로는 투표를 해야 할지, 박수로 추대해야 할지를 회원들에게 물어 임원 선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회칙 개정안 27조(상벌)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2020년 1월 중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예배부회장 김주열 장로가 인도했다. 기도는 백달영 장로가, 성경 봉독은 친교부회장 배상규 장로가, 설교와 축도는 뉴욕교협 총무 이창종 목사가, 광고는 홍보부회장 신승룡 장로가 담당했다.

이창종 목사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